

합성섬유, FTA로 칠레수출 급증

KOTRA, 화학제품 · 타이어 수출 호조 ... 메탄올 수입은 6% 감소

한국과 칠레의 FTA 발효 후 한국의 칠레수출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합성섬유 등 화학제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.

KOTRA(사장 오영교)가 발표한 <칠레 통계로 본 한국-칠레 FTA 발효 1개월 수출입 동향분석>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의 합성섬유 칠레수출은 2003년 4월 18만3000달러에서 2004년 4월 63만500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0% 증가했다.

또 화학제품은 전년동월대비 59% 증가한 606만3000달러를 기록했고, 타이어는 21% 증가한 96만9000달러를 달성하면서 수출 호조세를 나타냈다.

수입은 화학소재펠트가 2003년 4월의 486만6000달러에서 2004년 4월에는 678만5000달러로 39.4% 증가한 반면, 메탄올은 831만6000달러에서 779만5000달러로 6.0% 감소했다.

FTA 체결 전후 한국의 칠레수출 비교 (단위: 1000달러, %)

구 분	2003.1-4	2004.1-4	증감률	2003.4	2004.4	증감률
자동차	48,374	64,533	33	12,847	23,781	85
화학제품	12,213	16,815	38	3,811	6,063	59
건설중장비	2,346	1,905	▽18	422	772	83
세탁기	6,649	5,566	▽16	2,421	1,608	▽34
냉장고	1,622	2,084	28	302	1,068	254
칼라 TV	1,332	835	▽37	213	643	200
전자렌지	707	570	▽19	159	439	176
합성섬유	626	1,406	124	183	635	250
휴대폰	6,919	13,254	91	1,901	7,180	280
철강제품	3,977	7,414	86	1,066	1,248	17
자동차제품	3,166	2,644	▽16	581	866	49
타이어	3,555	4,299	21	803	969	21

자료) 칠레 관세청

한편, FTA가 발효된 4월 한달 동안 한국의 전체 칠레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1% 증가한 6250만달러를 기록했다. 특히,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(85%), 휴대폰(280%), 컬러TV(200%), 전자렌지(176%), 건설 중장비(83%) 등이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.

칠레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9% 증가한 1억28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동과 동광(117%), 삼겹살(110%), 포도주(370%) 등이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나타냈다.

KOTRA는 “칠레로부터의 4월 수입액 중 동, 메탄올, 펄프 등 3대 원자재 수입이 전체의 78%를 차지하는 등 FTA 체결 이후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인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14>